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2호 【루게 제24715호】 주제 103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김양건동지, 한광상동지, 리재일동지, 박명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환영서동지, 현영철동지, 김정관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리워 군인식당이 새로 일떠섰다.

2011년 10월 군인식당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군인식당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크게 잘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489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연건축면적이 2만 6,120여㎡이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으며 2,5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군인식당에서는 국수, 빵 등을 봉사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



성, 문화성을 발휘하는 것과 함께 국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식당에서는 국수의 질을 높고 옥류판을 비롯한 이름난 식당들과 경쟁하여야 한다고, 특히 요리사들의 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식당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원자재보장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고, 그러면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군인식당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나무랄데가 없이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식당을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보란듯이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48년 2월에 개업한 군인식당은 새 조국건설시기는 물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영업을 중단없이 진행하였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승경축 연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원자재보장대책까지 몰소 세워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군인식당의 문은 항상 열려져있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은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식당

이 지난 수십년간 군인들을 위한 급양봉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봉사활동을 잘함으로써 군인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대같은 은덕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사실, 주방을 비롯한 군인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봉사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식사실들을 대중봉사시설답게 넓직하면서도 시원하게 건설했으며 내부장식도 특색있게 했다고, 마감재의 색깔이 은은하고 좋다고 하시면서 국가연회장으로

리용해도 손색없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식탁과 의자 등 가구비품들의 질도 좋고 수용능력에 맞게 주방을 잘 꾸렸으며 국수그릇을 비롯한 집기류들도 그흔히 장만해놓았다고, 특히 위생안전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현대적인 소독 및 세척설비들도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식당의 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식당을 우리 군인들이 즐겨 찾는 대중식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친절

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군인식당 종업원들이 준비한 국수의 맛을 진히 보아주시면서 민족음식인 국수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리고 여러가지 음식물의 질을 더 높임으로써 군인들의 사랑을 받는 봉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군인식당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인들에 대한 친어머니 사랑을 안으시고 찾아오시여 한없는 믿음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 1일 경기장에서 여자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5월 1일경기장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28일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 1일경기장에서 국가종합팀과 월미도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축구경기를 보게 된 환희와 걱정으로 장내는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기에 앞서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걸고 경기마다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함으로써 온 나라의 경사를 안아 온 우리 조국의 미더운 딸들을 태운 무개차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람석에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국가종합팀 여자축구선수들의 얼굴마다에는 선군조선의 체육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관람자들은 나라의 체육발전과 인민



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평양시민들에게 손저어 주시였다.

최룡해동지, 황병서동지, 최태복동지, 현영철동지, 박도춘동지, 강석주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는 월미도팀의 먼저차기로 시작되였다.

량팀 선수들은 시작부터 경기속도를 높이며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적극

적이고 대담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한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 완강한 투지를 보여주는 량팀 선수들을 관람자들은 열렬히 응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종합팀 여자축구선수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면서 다양한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련속 통쾌한 득점장면을 펼쳐보일 때마다 박수를 보내시였다.

경기에서는 아시아의 최강팀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준 국가종합팀이 월미도팀을 9: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관람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진감하며 수도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가 끝난 다음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에 참가하지 못하였던 탁구선수 김정동무를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김정선수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1일 경기장이 당장건기념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상징,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건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5월 1일경기

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과 통이 큰 결단에 의하여 일떠선 세계적인 경기장이며 선군조선의 자랑이고 체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15만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5월 1일 경기장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훌륭히 전변시키는 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비상히 높아지고 특히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하여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5월 1일경기장을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로 개건된 5월 1일경기장에 몸소 나오시여 국가종합팀과 월미도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보아주시고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체육강국건설에 모든것을 바쳐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시정치보도반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준공식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5월1일경기장이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되었다.

풍치아름다운 통라도의 자연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웅장화려하게 개건된 5월1일경기장은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며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대중체육봉사기지이다.

경기장에는 15만석의 관람석을 가진 축구장과 복상주로, 예비운동실, 선수침실, 감독실, 심판원실, 검사등록실 등이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꾸려졌으며 수영장, 탁구장, 미니어골프장, 피로회복실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과 봉사망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르히 갖추어져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는 물론 관람자들의 편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자!》,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만들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있었으며 국기개양대에는 공화국기가 나붙고있었다.

준공식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 5월1일경기장 개건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 체육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선군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자랑찬 체육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연설자는 주체의 건축술을 과시하며 개건된 5월1일경기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세계적규모의 체육시설이며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선군조선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9월 몸소 5월1일경기장을 찾으시어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완전히 일신시킴을 받기하시고 강력한 건설지휘부와 설계집단, 건설력량을 편성해주시였으며 자재, 설비보장대책까지 세워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6월 공사현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람석의 자의

색갈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세부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5월1일경기장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과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연설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피우는 심장으로서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팀체전, 심혈전을 들여내어 공사에서 놀라운 기적과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몇개의 대상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될수 있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편관단위들에서는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평양시민들과 5월1일경기장의 종업원들, 각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야간지원청년동력대원들도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개건보수전투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참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김정일애국주의를 체현화하고 실천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충정이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며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전체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친 선수들처럼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금메달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고 체육강국에 비약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시설물들을 정히 다루고 리용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최상의 체육봉사기지를 마련해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깊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인민의 꿈과 이상이 활짝 꽃피날 강성번영의 태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주체체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며 부강번영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시길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준공식 진행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중 앙 연 구 토 론 회 진 행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중앙과 평양시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꾼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일군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에서 밝혀신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있게 해설론정한 5건의 문명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더 혁명적기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는 사회주의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의 총서》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사 부장 강진형이 토론했었다.

그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20년전 11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를 발표하신것은 사회주의건설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신 력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계급주의자들의 온갖 반사회주의계변을 여지없이 박산내고 인류의 앞길에 주체

의 사회주의가 영원한 진리로, 백승의 과학으로 빛을 뿌리게 한 강위력한 보금이다.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의 위대한 등대로, 사회주의승리의 대백과전서로 공인되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와 우리 인민의 앞길에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불멸의 전투적기시지라는데 그 세계사적의의가 있다.

로작은 또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선인한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의 총서이다.

로작에 담겨진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에 대한 정식화는 과학으로서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완성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의 원리적기초를 밝히고있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시대와 력사앞에 힘있게 선인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확고히 담보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더불어 영원할 승리의 기치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박명남은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에서 발전완성시킨 위대한 혁명학설》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토론했었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무엇보다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본질과 우월성,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력사적필연성을 뚜렷히 확증하였다.

사회를 단순히 하나의 경제적구성에 대해서 보고 물질중심의 관점에서 그 면모와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선형학설의 미숙성과 그에 대한 교조적 충지부를 찍고 그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고있는것은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 서 빛내어주고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하느같은 세상이 절세위인들의 인민대중중립주의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라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걸감하고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히었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이 밝힌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절명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벌리면서도 사상적요새를 절명하기 위한 인간적조사업, 사상적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당과 혁명대오

의 사상적일색화, 조직적단결을 실현하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이야말로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적진전과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처방이며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 위에서 발전시킨 가장 완성된 위대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사회과학원 소장 박사 서성일은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세계의 유일한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히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은 육체적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과 사람의 값높은 삶은 사회적집단을 위해 헌신하면서 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있다는 데에 밝혀졌다.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사람위주의 독특한하고 우월한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

게 한 사상리론적기초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인것만큼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면서 값높은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데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의 본질적내용이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되었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로 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오늘도 빼어난 영민인민을 낳아, 주체의 사회주의로 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은 위력한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조선로동당출판사 부장 김철만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와 권리를 철저히 지켜주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요구와 염원을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들에 때때 정확히 반영하고 관철해오므로써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가 철저히 지켜지고 권리가 원만히 행사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들에게 온갖 사회적혜택을 아낌없이 돌려주어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하느처럼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장그려 바치시었다.

오늘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편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확고한 결심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펼쳐가고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 강좌장 부교수 서경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했었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현현

이며 최강의 무기인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며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실현의 구호, 행동의 구호로 추켜들고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만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구호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생산적양상을 일으키며 군현활동적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서나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계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투철한 신념과 견결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가 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행위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를 영원한 승리의 표대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명도따라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을 기어올리며 새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국회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을 만났다

【브라자빌 10월 27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공화국국회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청사에서 앙드레 오바마 이투 국회의장 의장과 주스뎀 콰마 국회의원 의장을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상원의장은 지난 시기 공고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고, 열렬한 애국자가 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행위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를 영원한 승리의 표대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명도따라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을 기어올리며 새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한편서 자주, 친선, 협조의 리념 밑에 두 나라 국회사이에 판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담화들은는 강화국보건설, 궁석용 위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최철수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립사대리대사, 기타 수행원들과 필레르 푸리 송구 국회의상원 제1서기, 가브리엘

민의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바마 국회의상원 외교 및 협조분과위원회 위원장, 에페가 발레르 국회의원 제1서기, 끼고 송비 조제프 제2서기, 판계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김영남위원장을 환영하여 주스뎀 콰마 국회의원 의장은 연회를 마련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공화국 국회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을 만났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국회의장 앙드레 오바마와 국회의원 주스뎀 콰마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국회의장 앙드레 오바마에게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감사전문을 보내었다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친선적인 수단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아름다운 하르툼을 떠나면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여준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기간 쌍무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고 일련의 합의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우리의 귀국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발전을 가일층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선적인 수단정부와 인민이 각자의 훌륭한 명도밑에 나라의 평등완정과 안전보장,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친선적인 수단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아름다운 하르툼을 떠나면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여준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기간 쌍무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고 일련의 합의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우리의 귀국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발전을 가일층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선적인 수단정부와 인민이 각자의 훌륭한 명도밑에 나라의 평등완정과 안전보장,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